

單獨家口老人의 住居滿足度에 關한 研究

— 도시·농촌지역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Housing Satisfaction of Elderly Living Alone or with Spouse

— A Comparison between Urban and Rural Area —

중앙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李 慶 姬

Dept. of Home Management

Chungang University

Associate Prof. : Kyung Hee Khce

중앙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張 溫 庭

Dept. of Home Management

Chungang University

On Jeong Chang

목 차

- | | |
|---|---|
| <p>I. 서 론</p> <p>1. 문제제기</p> <p>2. 용어정의</p> <p>II. 이론적 배경</p> <p>1. 노인단독가구의 특성</p> <p>2. 노인의 주거만족도</p> <p>(1) 인성요인과 주거만족도</p> <p>(2) 주거환경과 주거만족도</p> <p>(3) 노인의 주거만족도와 생활만족도</p> <p>III. 연구방법</p> <p>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설정</p> | <p>2. 척도의 구성</p> <p>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p> <p>4. 자료의 분석방법</p> <p>IV. 연구결과 및 해석</p> <p>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p> <p>2. 단독가구노인의 인성특성과 주거만족도</p> <p>3. 도시·농촌별 주거특성과 단독가구노인의 주거만족도</p> <p>4. 단독가구노인의 생활만족도</p> <p>V. 결론 및 제언</p> <p>참고문헌</p> |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main factor which influences the housing satisfaction of elderly who lives alone or with spouse and to make it sure that housing satisfaction is an important factor to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The specific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

- 1) How does the locus of control of elderly influence a housing satisfaction ?
- 2) How does the housing characteristics of elderly influence on the housing satisfaction

and this relationship has any difference between urban and rural area.

3) Which variables influence upon the housing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and how much do they influence ?

The locus of control scale, housing satisfaction scale, life satisfaction scale were composed on the basis of precedent researches.

For this study 202 elderly who live in urban and rural area were interviewed.

To analyze the data, such as F-test, t-test, two-way ANOVA, Mu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with SPSS program.

The results are as follows :

1) The interrelation between locus of control and housing satisfaction is as follows. Namely, if he believes in his deeds and will rather than his fate, he feels more housing satisfaction.

2) The housing satisfaction of the elderly was found to be influenced by location. Namely, the elderly living in the urban area feels more housing satisfaction, especially he lives in apartment and unshared house. On the contrary, the elderly living in the rural area was not affected by housing type and the number of households who live together. The housing satisfaction of the elderly living in the rural area or the urban area equally influenced by the housing tenure, heating system, bathroom facility, flush toilet, and convenient service from the outside.

3) The main factors which influence the housing satisfaction of the single household elderly are bathroom facility ,locuse of control, and income. When we concern about the location in urban area the housing satisfaction of the elderly were mainly influenced by income. but in the rural area, they were influenced by the service facility from the outside.

As a conclusion, the main factor which influences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proved to be housing satisfaction in both rural and urban area.

I. 서 론

1. 문제제기

현대사회에서 노인인구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감소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지만 반면 이들을 부양할 생산인구가 상대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현재 노인부양 문제는 가정에서 뿐 아니라 하나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자식들과 같이 사는 노인들이 줄어 들고 단독가구를 형성하는 노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회적 변화 뿐 아니라 노인 자신의 개인적인 원인 즉, 자녀와의 갈등을 피하고 보다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생활하기 위하여 단독가구를

형성하기도 한다(이가옥 외, 1989).

이러한 노인단독가구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보편적인 노년기 가구형태로 정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단독가구노인의 생활과 관련하여 이들의 주거환경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그것은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사회활동이 축소되면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므로 '주거환경'이 이들의 생활안정을 결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주거환경은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보다 단독가구노인에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일 경우에는 주거의 위치, 시설설비 등 주거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권이 거의 자녀에게 있고, 주거욕구 또한 주로

자녀에 의해 충족된다. 반면에, 단독가구노인은 주거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보다 높고 주거만족 여부를 직접 느끼고 조절하게 된다. 또한 동거노인은 함께 거주하는 가족구성원들의 일상적인 지원을 통해 신체적·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지만 단독가구노인은 이러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 그 대신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거내부시설 및 주거외부의 서비스시설, 이웃과 친밀한 상호작용 등을 통해 정서적·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와 같이 단독가구노인은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에 비해 유용한 가족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보다 안정되고 편리한 주거환경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한 편리한 주거환경을 확보함으로써 단독가구노인은 주거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거환경수준이 전반적으로 열악하고, 이에 따라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일반 노인들의 주거조건은 열악할 수 밖에 없으며 단독가구노인의 주거생활수준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단독가구노인에게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 근접할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선 단독가구노인의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거만족도의 연구는 단독가구노인의 생활의 질을 평가하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즉, 주거만족도는 단독가구노인의 전체적인 생활만족도를 평가하는 유용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Marans, 1975; 최혜경, 1985). 그것은 자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단독가구노인들에게 있어서 편리한 주거시설과 안정된 주거환경은 주거만족도를 높여 주며, 그에 따라 노년기 생활의 질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최신덕·김종숙, 1983).

한편, 우리나라는 지역간의 불균형 발전으로 주거환경이 지역간에 질적·양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주거소유율이나 주거공간 사용 형태를 살펴 보면 도시지역은 농촌에 비해 심각한 주택부족을 겪고 있으며(경제기획원, 1985), 육설이나 난방시설 등 시설설비면에서는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열악한 상태에 있다(이경희, 1987). 이와같이 노인들은 거주지역에 따라 주거환경의 질적 차이를 경험할 것이고 주거에 대한 만족도도 서로 다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차이는 주거만족도의 평가시 대단히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주거환경이 서로 다른 도시·농촌지역의 단독가구노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주거환경의 재 특성이 주거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전반적인 생활의 질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 보는 것은 노인에게 있어서 주거환경의 중요성을 밝히는 데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2. 용어 정의

본 연구에 사용한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1) 노인단독가구: 만 60세 이상의 노인이 자녀 및 친척과 동거하지 않고 독신 또는 부부로 만 1개월 이상 독립된 가구형태로 생활하는 가구를 말한다.

2) 인성 요인: 성격을 측정하는 하나의 변인으로 자신에게 일어난 여러 사건들이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고정적인 특성에 달렸다고 믿는 내적통제 성격과, 사건의 원인이 자신의 행동과는 무관하게 운명, 행운, 우연이나 사람의 개인적 통제와 이해력을 넘어서 어떤 힘들에 달려있다고 믿는 외적통제성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주거만족도: 현재의 주택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서 주택에 대한 만족·불만족의 정도를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만족도의 개념을 주거욕구가 충족된 정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의 결과라 정의하고 주거환경에 내포된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주거의 구조적 특성, 주거의 시설설비, 주거의 경제성, 이웃환경에 대한 측면 등 4가지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다.

3) 생활만족도: 생활에 대한 행복과 만족의 주관적인 감정이자 일종의 태도로서 과거 및 현재의 삶과 활동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미래의 삶과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정도를 말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인단독가구의 특성

기존의 연구에서 노인들이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가구를 형성하게 된 주된 이유는 자녀의 결혼후 독립 또는 직장이나 교육 때문이며 본인 스스로 원해서 생활하게 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가옥 외, 1989). 그리고 현재 단독가구노인 중에서 앞으로 단독가구 생활을 계속하겠다는 노인이 절반이 넘는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 볼 때 노인단독가구는 하나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일반적인 노년기 가구형태의 하나로 정착될 것으로 사려된다. 우리나라의 노인단독가구의 현황을 살펴 보면 전체가구중 노인단독가구의 비율은 1985년 4.1%(인구센서스, 1985)에서 1989년에는 5.2%(이가옥 외, 1989)로 증가하였으며, 노인가구중 노인단독가구의 비율은 1985년에 20.2%(임종권, 1985)에서 1989년에는 22.9%(이가옥, 1989)로 점차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단독가구는 그 형태에 따라 노인독신가구와 노인부부가구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노인부부가구가 대부분이며 노인독신가구 일 경우 여자노인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이가옥 외, 1989). 이러한 현상은 남자노인의 경우 취사 등 일상생활의 불편함 때문에 독신으로 생활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으며, 재혼의 기회가 남자노인에게 더 많고 여자의 평균수명이 남자보다 더 길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연령별로는 60대 노인이 70대 노인보다 2배정도 많았으며, 연령증가에 따라 노인단독가구 중 노인부부가구의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에 노인독신가구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가옥 외, 1989).

지역별로는 일반적으로 도시보다 농촌지역에서 노인단독가구가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임종권의 조사에서는 대도시가 15.1%, 농촌이 경우는 23.3%로 농촌이 다소 높게 나타났고, 이가옥의 조사에서도 대도시에 비해 농촌지역이 거의

2배나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임종권, 1985; 이가옥 외, 1989). 이와 같이 농촌지역에 노인단독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라 나타난 농촌거주 젊은층의 이촌현상과 가족주의의 쇠퇴, 도시화 등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단독가구노인은 점차 증가하고 있고, 노인부양체제가 가족부양체제에서 노인자신의 대비 및 사회적 지원체제로 바뀌어가는 과도기에 있지만 단독가구 노인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뚜렷한 대책은 미약한 실정이다. 특히, 가족과 동거하면서 가사를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과는 달리 단독가구노인들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즉,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은 자녀와의 친밀한 접촉으로 정서적·물질적 부양을 받지만, 단독가구노인의 경우는 생활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이 겪는 일상생활상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노인단독가구의 분포나 형성배경면에서도 도시·농촌지역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실제 그들의 주거상태 및 주거욕구수준, 그리고 주거에 대한 평가도 지역간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되며, 이에 따라 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도 각각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2. 노인의 주거만족도

주거만족도는 주거욕구의 충족정도를 주택에 대한 기대감, 열망, 경험 등에 비추어 비교함으로써 현재의 주거상태에 대해 내리는 평가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주거만족도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들이 제시되었다. Lawton 과 Cohen(1974)에 따르면 노인들은 비슷한 연령끼리 모여 살고, 범죄율이 낮으며, 보다 소규모의 지역사회에 거주할수록 주거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리고 Jirovec(1987)는 도시노인의 경우 이웃 및 지역사회와의 친밀감, 외부환경으로 부터의 안전성이 주거만족에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하였고, 주거 쾌적성·유치·관리면의 개선도 이들의 주거만족을 증가시

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주거만족도는 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Rossi(1955)는 주거가 사람들에게 생활형태로서 보다는 생활만족도의 원천으로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

국내의 연구에서는 최혜경(1985)이 노인을 대상으로 주거만족도를 전반적인 생활의 질적 수준과 복지상태와 관련시켜 분석한 바 있는데 그에 따르면 주거상태가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노인의 주거환경이 직접, 간접으로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이효재, 1979).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노인 특히 노인단독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주거만족도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노인들의 일반적인 생활실태 및 생활의 질을 측정하는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노인의 주거만족도에 대한 분석이 실시되었을 뿐이다.

1) 인성요인과 주거만족도

인성요인이란 개인의 성격과 관련된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Rotter(1954)가 제시한 내적, 외적 통제성격을 기준으로 개인의 성격을 구분하고자 한다. 그에 따르면, 한 개인이 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여러 사건들이 자신의 행동에 따라 일어난다고 지각하여 자신이 그 사건들을 조정할 수 있다고 믿느냐, 아니면 그 사건들은 자신의 행동과는 무관하여 운명, 행운, 우연, 그리고 사람의 개인적 통제와 이해력을 넘어선 외적인 힘들에 달려 있다고 믿느냐에 따라 개인의 성격을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전자를 내적 통제성격이라 하고, 후자를 외적 통제성격이라 한다(Rotter, 1982). 즉, 이것은 환경에 대한 통제력의 근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성격을 구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내외 통제성격은 Rotter에 의해 소개된 이후 환경을 통제하려는 동기, 과업수행 및 정보추구 행위, 사회적 압력에 대한 동조성 및 저항성, 성취행동, 대인행동, 적응불안 등과 관련 연구를

통하여 내·외적 통제성격이 인간의 다양한 행동을 예측케하는 중요한 요인임이 입증되었다. 예를 들면, St. Rickland는 내적 통제성격자가 외적 통제성격자보다 활동적이고, 즉각적인 만족보다는 지속적이고 더욱 가치있는 보상을 선택하며, 적응능력이 높고 욕구불만을 지연시키는 힘이 강하여 성취동기가 높다고 하였다(이강인, 1980).

이와 같이 인성요인은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게 하고 만족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거만족도에 관련된 연구들은 인성요인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주거학분야에서는 Francescato(1975)가 인성요인과 주거만족도를 관련시켜 연구한 이후 주거만족도, 주거욕구 등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에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나 개인적인 특성을 주요한 요소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주거만족에 대한 내·외적 통제성의 영향력을 설명하면서 개인의 내·외적 통제성격의 차이가 직접적으로는 환경에 대한 만족과 수행에, 간접적으로는 환경의 인지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Weidemann & Anderson, 1985). 따라서 개인의 주관적 평가를 중심으로 한 주거만족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외적 통제성격의 영향력이 매우 의미있게 나타나리라 생각된다.

2) 주거환경과 주거만족도

(1) 주거의 구조적 특성

주거환경의 구조적 특성은 주거에 대한 애착과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으로서 주거형태 및 내부시설, 소유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노인을 위한 주거형태는 아파트, 단독주택 뿐 아니라 노인들끼리 모여 사는 노인집단주거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그 주거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 노인복지시설이 잘 발달된 외국의 경우에는 노인들이 아파트 혹은 노인집단주거형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단독주택을 선호하며 노인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노인집단주거나 좋은 시설의 양로원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이효재, 1979; 고계철, 1979).

그리고 주거내부 시설설비면에 있어서도 노인들은 젊은 세대보다 신체적으로 부자유스럽고 많은 질병을 경험하므로 편리한 난방시설, 욕실 및 화장실 시설, 운수시설 등은 주거만족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의 지원없이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에 이러한 시설의 설치와 유지비용 그리고 관리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Meek, 1980).

주거를 소유한다는 것은 주거가 하나의 소유물로 간주되고 경제적 능력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주거만족을 증가시켜 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즉, 어떤 노인이 주거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이룩했다는 하나의 성취와 성공의 상징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노인에게 있어서 주거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Morris & Winter, 1976).

한편, 주거유지비와 주거만족도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주거비를 많이 사용할수록 주거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상관관계를 제시한 연구도 있었으나 이러한 관계는 본인소유의 주거가 있고 일정한 수준이상의 소득을 가진 집단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주거유지비가 주거만족도를 평가하는 유용한 기준이 될 수는 있으나 주거유지비 자체만으로 주거만족도를 판단하기는 곤란하다(Brink & Johnston, 1979).

(2) 이웃 환경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이웃환경으로는 이웃사람과의 친밀감, 서비스 시설의 질적 수준과 편의정도, 그리고 이웃환경으로 부터의 안전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웃환경의 영향력은 사회적 측면과 물리적 측면으로 구분되어 분석될 수 있다. 먼저 사회적 측면은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특히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노인에게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Janovita와 Kasarda(1975)는 주거환경을 설

명하는 데 있어서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노인과 그 이웃사람들과의 유사성은 노인의 긍정적인 사회활동참여와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가까운 이웃에 자녀가 살고 있는 경우에는 노인의 주거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Weidemann & Anderson, 1980). 다른 연구에서도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들과 자주 접촉할 수 있는 주거지역을 원하며 되도록 오랫동안 사귀어 온 친구·친지가 있는 거주지를 선호한다고 한다(Struyk & Soldo, 1980). 또한, 빈민 슬럼가와 같이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주거지에서 사는 노인이 아파트나 질적으로 좋은 주거지에 사는 노인보다 오히려 이웃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Hourihan, 1984). 이는 물리적 주거환경이 불량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웃과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통해 보다 높은 만족감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외에도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저하로 활동에 많은 제한을 받는 노인은 주위의 서비스시설 등 이웃환경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주거외부의 서비스시설 중에서도 교통시설, 오락시설, 구매시설, 의료시설 등의 인접성과 질적 수준은 노인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만약 이러한 서비스시설이 주거지역에 가까이 있지 않으면 노인의 주거만족도는 낮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편리한 교통시설은 노인에게 사회적 접촉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므로써 노인의 고립감과 외로움을 제거해 주기도 한다(Newman, 1986).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좋은 산책코스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의 유지관리 및 미적 측면 또한 잠재적으로 주거만족도를 향상시켜 줄 수 있으므로 앞으로 더욱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Butterfield & Weidemann, 1987).

이 외에도 주거환경에 대한 안전성, 이웃으로부터의 프라이버시 보호, 이웃환경의 쾌적성 등이 주거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Newcomer, 1986). 즉, 혼자 살거나 나약한 노인들의 경우,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외부의

다른 거주인들로부터 적절한 시기에 자신의 생활을 통제할 수 있는 것 또한 주거의 만족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3) 거주지역

노인에게 있어서 거주지역의 위치, 즉 도시·농촌지역간의 차이는 주거자체의 특성 뿐 아니라 서비스 시설과의 근접성, 교통문제, 일상 생활문제의 해결용이도 등의 차이와도 관계가 있다. 더우기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거주지역의 차이는 주거의 질적 차이를 유발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거주지역의 특성을 두가지 측면 즉, 물리적 특징과 이웃환경의 특징으로 나누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거주지의 물리적 측면을 살펴 보면, 농촌지역은 도시지역보다 자연과 접하는 기회가 많고, 낮은 인구밀도로 보다 넓은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주거를 소유하고 있는 노인이 도시지역보다 많다(이가옥 외, 1989). 이러한 농촌지역의 높은 주거소유율은 주거비용을 낮출 수 있으므로 주거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촌지역의 주거는 대부분 기본적인 수도, 난방, 화장실, 욕실 시설 등이 미비하고, 매우 오래되고 낡아서 이를 수리, 보수하거나 개선하자면 많은 비용이 든다. 따라서 농촌노인들이 경제적 형편상 주거를 개선시키기가 힘들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농촌노인들은 도시노인들보다 질이 낮은 주거에서 살며 많은 주거결손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흥미있는 점은 이와 같이 질적으로 낮은 주거에 거주하는 농촌노인이 오히려 자신의 주거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난다는 점이다(Newcomer, 1986). 이러한 결과는 농촌노인의 주거에 대한 욕구수준이 도시노인보다 낮으므로 현재의 주거 상황을 자신의 욕구수준과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Newcomer, 1986).

한편, 도시, 농촌지역간 이웃환경의 특성을 비교하여 보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이 서비스나 편의시설의 사용면에서는 용이하지만 이웃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농촌지역은 도시지역보다 사회진출을 통한 다양한 자기발전의 기회가 적기는 하지만, 이웃관계가 광범위하고 친밀성이 높을 뿐 아니라 효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이 강하기 때문에 노인의 생활에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반면, 도시거주 노인은 도로소음과 교통난, 범죄 등의 바람직하지 못한 이웃환경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경험하는 주거만족도에는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사려된다.

3) 노인의 주거만족도와 생활만족도

노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므로 주거는 그들의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노인에게 있어서 주거는 보호, 안락의 의미 뿐 아니라 이웃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사회적 의미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노인들은 자신의 주거환경에 만족할수록 전체 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높으리라 예측할 수 있으며, 실제 생활의 질을 연구하는 연구자들도 전체 생활만족감에 대해 논하면서 주거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의미있는 관계를 밝혔다.

먼저 외국의 연구를 살펴 보면, Hafstrom과 Duncing(1976)은 생활의 수준에 관한 연구에서 주거에 대한 만족이 생활의 만족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라고 하였다. 또한 Streib와 Beck(1980) 그리고 Smith와 Lipman(1972)에 따르면 긴장이 적은 환경, 개인적인 선택의 여지가 더 많은 환경에서 사는 노인들이 그렇지 못한 노인들보다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국내의 연구로, 이효재의 연구(1979)에서 건강, 수입, 주택사정 등의 문제를 심하게 느끼는 노인일수록 일상생활에서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경(1985)은 노인의 주거생활과 생활만족도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힌 바 있으며 특히, 주거생활이 가족내 결속을 매개로 하여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서승희(1987)도 주거에 대한 자아실현 및 미적 욕구가 생활만족도의 가장 큰 예측변인임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주거만족도가 건강, 취업, 소득 등의 요인보다 생

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

한편, 주거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생활만족도가 역으로 주거환경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도 고려될 수 있다. 즉, 이것은 그들의 생활에 불만족해 하는 노인일수록 그들의 주거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거환경의 부적응을 초래한다는 것은 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Golant, 1982).

이와 같이 주거환경과 생활만족도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 보면, 대부분의 외국 연구에서는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거의 물리적 특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국내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물리적 특성과 함께 가족관계나 경제상태 등의 매개변수를 통한 주거환경의 간접적인 영향력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생활의 질에 영향을 주는 주거의 제 특성은 물리적 특성과 함께 자산으로서의 가치, 이웃과의 사회관계 등 경제적, 사회적 측면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노인에게 있어서 주거가 신체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 외에 개인의 능력 및 자산과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설정

본 연구에서 제시한 변인들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림 1 과 같은 개념적 모형을 구성하였고, 이 모형을 단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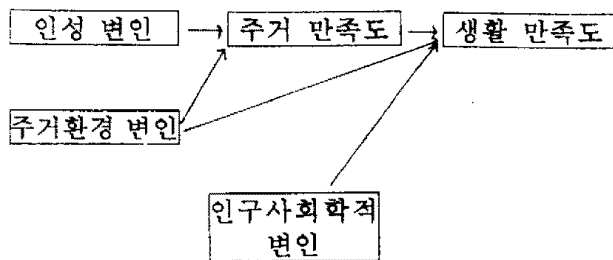


그림 1. 본 연구의 분석모형.

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도시, 농촌별 단독가구노인의 주거만족도는 노인의 인성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2〉 도시, 농촌별 단독가구노인의 주거만족도는 주거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3〉 도시, 농촌별 단독가구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어떤 변인에 따라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을 것인가?

2. 척도 구성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내의 변인들은 다음과 같은 측정도구에 의해 구성되었다¹⁾.

1) 주거환경 변인

외부시설의 편이도는 5가지 문항을 '편리하다(2점)', '보통이다(1점)', '불편하다(0점)'로 각 시실수준을 평가한 후, 전체의 점수분포를 고려하여 합계가 5점이하일 때는 불편한 것으로, 6점이상일 때에는 편리한 것으로 전체 수준을 평가하였다²⁾.

2) 인성 변인

인성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Rotter의 내외통제척도(I-E Control Scale)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한 김철수의 21개문항을 기본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6개의 허구문항을 제외한 15개의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내외통제척도에 있어서 각 문항의 점수는 외적통제성이면 0점, 내적통제성이면 1점을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통제성으로 간주하였고, 이강인(1982)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15점만점에 11점 이상은 내적통제성격집단, 8점이하는 외적통제성격집단으로 구분하였다.

3) 주거만족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거만족도 측정도구는 그

¹⁾ 단, 여기서는 명목척도를 제외한 서열척도 이상의 점수화될 수 있는 변인들에 대한 내용만을 정리하고자 한다.

²⁾ 차성란(1984)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문항내용을 노인에게 적합하게 수정·보완한 것이다.

동안 선행연구에서 주거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구성된 문항들을 검토하여 총 15개 문항으로 작성하였고, 각 문항을 5점척도화하여 15점~75점까지 주거만족도를 점수화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주거만족도를 주거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만족도³⁾, 경제성에 대한 만족도, 시설설비에 대한 만족도, 이웃환경에 대한 만족도 등 4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15개문항을 각 하위영역 내용에 맞추어 선정하였다.

4) 생활만족도

노인의 생활만족도 측정에는 최성재(1985)의 '노인의 생활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과거차원 내용>의 6문항, <현재차원 내용>의 8문항, <미래차원 내용>의 6문항 등 모두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기준은 '그렇다(3점)', '그저 그렇다(2점)', '그렇지 않다(1점)' 등 3점척도로서 생활만족도 점수는 긍정적 부문의 총점에서 부정적 총점을 뺀 것이다.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조사 대상자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단독가구 노인 중 여자노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시기는 1990년 3월 27일부터 4월 11일 사이에 실시하였으며 표본추출은 도시지역과 농촌 지역에 따라 상이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도시 지역은 서울시와 과천시에서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생활보호대상 노인과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일반 단독가구노인을 표본으로 하였고 농촌지역은 대부분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경남 칠원면, 칠북면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도시 103가구, 농촌 99가구로 총 202가구이다.

³⁾ 구조적 특성에 대한 만족도에는 주거유형, 사용면적, 정원 등 3문항을, 경제성에 대한 만족도에는 소유권, 주거유지비, 생활용품 설비수준 등 3문항을, 시설설비에 대한 만족도에는 난방시설, 욕실 및 화장실 시설, 온수 및 급수시설, 주거관리 및 유지 등 4문항을, 이웃환경에 대한 만족도에는 이웃과의 교류장소, 이웃사람들의 생활수준, 이웃사람들과의 친밀정도, 안전성, 외부서비스 시설의 편의도 등 5개의 문항을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조사방법은 조사대상이 스스로 설문지에 응답할 능력이 없는 노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모두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4. 자료의 분석방법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SPSS Package를 이용하여 백분율, F검증, T-test, 이원변량분석, 중다회귀분석 등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도시지역(51.0%)과 농촌지역(49.0%)에서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연령별로는 60대노인이(69.8%) 70대노인(30.2%)보다 많았다.

이들의 주거유형은 도시·농촌 모두 단독주택이 대체로 많았지만 주거를 소유하고 있는 노인은 도시(57.3%)보다 농촌지역(87.8%)에서 더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동거가구수는 1가구(52.8%), 3가구 이상(31.0%), 2가구(16.2%)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경우 3가구 이상이 동거하는 가구가 46.1%로 제일 높은 분포를 보여 도시주거의 과밀 현상을 알 수 있었으며, 반면 농촌의 경우는 독채로 사는 가구(68.4%)가 대부분이었다.

난방시설은 도시의 경우 연탄 보일러(37.9%), 중앙난방(34.0%)이 대부분이었고, 농촌의 경우는 연탄 온돌(42.4%)과 재래식 아궁이(25.3%)가 거의 전체 난방시설의 2/3를 차지하였다.

화장실 시설은 도시의 경우 76.7%가 수세식이지만 농촌의 경우는 83.8%가 재래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욕실시설에서는 농촌의 경우 84.8%가, 그리고 도시의 경우에도 거의 절반인 44.7%가 욕실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농촌 뿐 아니라 도시지역의 욕실시설 부족의 심각성을 제시하여 주었다.

2. 단독가구노인의 인성특성과 주거만족도

단독가구노인의 주거만족도가 그들의 인성특성

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인성변인에 따라 조사대상 노인들을 외부의 힘이나 운명등을 믿는 외적통제 성격 집단(점수가 8점이하)과 자신의 행위와 의지를 믿는 내적통제성격 집단(점수가 11점이상)으로 나누어 두 집단간의 주거만족도를 살펴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의지를 믿는 노인(내적통제성격 집단)이 전체 주거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주거만족도의 하위영역인 주거의 구조적 특성, 경제성, 시설설비, 이웃환경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모두 자신의 행동과 의지를 믿는 내적통제성격 노인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적통제 성격자가 적응능력과 성취동기가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나 기대수준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고, 만족감에 대한 평가 또한 긍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여 주거에 대한 만족도 역시 외적통제 성격자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3. 도시·농촌별 주거특성과 단독가구노인의 주거만족도

단독가구노인의 주거만족도는 주거특성에 따라 도시, 농촌지역간에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 모형에서 제시된 주거유형, 소유권, 동거가구수, 난방시설, 화장실시설, 욕실시설, 외부 서비스시설 등 주거특성 변인과 지역차이 변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특히, 단독가구노인의

주거만족도에서 지역차이와 각 주거특성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의미있게 나타난 경우에는 그 실제적 의의를 파악한 후 평균치의 개별비교를 위하여 후속검증을 실시하였다.

단독가구노인의 주거만족도에서 주거특성 변인 중 지역차이와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변인은 주거유형과 동거가구수 변인이었고, 그외 소유권, 난방시설, 화장실 시설, 욕실시설, 외부 서비스시설에서는 주효과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주거유형과 동거가구수에 따른 단독가구노인의 주거만족도가 도시, 농촌지역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그외 소유권, 난방시설, 화장실시설, 욕실시설, 외부 서비스시설에서는 도시, 농촌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이들 각 변인만으로 단독가구노인의 주거만족도가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주거유형과 동거가구수에 따른 단독가구노인의 주거만족도를 살펴 보면 다음 (그림 2, 3)과 같다.

즉, 도시의 경우 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이 기타(주로 상가건물) 유형에 거주하는 노인보다 주거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F=4.42, df=3, p=.006$) 농촌지역에서는 주거유형에 따라 주거만족도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1.24, df=2, p=.291$). 이러한 결과는 도시지역의 경우, 단독가구노인들도 점차 다른 세대와 마찬가지로 편리한 아파트 유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 인성변인에 따른 주거만족도의 변량분석

인성특성		주 거 만 족 도									
		구조적 특성				경 제 성					
		M	SD	SE	t	M	SD	SE	t		
외 적 통 제 성 격	9.12	3.09	.26	$t = -3.57^*$	9.67	2.66	.23	$t = -2.85^{**}$			
내 적 통 제 성 격	10.66	2.89	.68		11.41	1.77	.42				
주 거 만 족 도											
시 설 설 비				이웃 환경				전 체			
M	SD	SE	t	M	SD	SE	t	M	SD	SE	t
10.9	4.45	.38	$t = -2.85^{**}$	17.3	3.27	.28	$t = -2.56^*$	46.9	10.0	.99	$t = -4.40^{***}$
13.7	3.94	.93		19.1	2.74	.64		55.5	7.13	1.73	

* $P < .05$

** $P < .01$

*** $P < .001$

표 2. 지역별 주거특성에 따른 주거만족도

주거특성	주거만족도	주 기 만 족 도			
		SS	DF	MS	F 또는 t값
지역 * 주거 유형	역형	60.32	1	60.32	.70
	유형	962.27	3	320.76	3.74*
	차	616.84	2	308.42	3.59*
오	차	15684.25	183	85.70	
합	계	17662.21	189	93.45	
지역 * 주거 소유권	역권	1199.64	1	1199.64	15.17***
	유권	2520.18	2	1260.09	15.94***
	차	201.11	2	100.56	1.27
오	차	14542.07	184	79.03	
합	계	17662.21	189	93.45	
지역 * 동거가구수	역수	641.25	1	641.25	7.23**
	구수	488.48	2	244.24	2.75
	수	832.27	2	416.14	4.69**
오	차	15859.49	179	88.60	
합	계	17578.18	184	95.53	
지역 * 난방 시설	역설	55.04	1	55.04	.76
	시설	4095.87	4	1023.96	14.14***
	차	62.31	3	20.77	.28
오	차	13105.18	181	72.40	
합	계	17662.21	189	93.45	
지역 * 화장실 시설	역설	278.51	1	278.51	3.61
	시설	2942.11	1	2942.11	38.21**
	차	.68	1	.68	.00
오	차	14320.57	186	76.99	
합	계	17662.21	189	93.45	
지역 * 욕실 시설	역설	132.93	1	132.93	1.98
	시설	4782.44	1	4782.44	71.27***
	차	.08	1	.08	.00
오	차	12480.85	186	67.10	
합	계	17662.21	189	93.45	
지역 * 외부서비스 시설	역설	63.99	1	63.99	.75
	시설	1534.29	1	1534.29	18.03***
	차	.77	1	.77	.00
오	차	15650.70	184	85.05	
합	계	17566.10	187	93.93	

*P<.05 **P<.01 ***P<.001

그리고 동거가구수에서도 도시의 경우는 한 주거내에 3가구 이상이 같이 거주하는 경우보다 1가구 즉, 독채로 거주하는 노인이 주거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지만(F=5.26, df=2, p=.006) 농촌의 경

우는 동거가구수에 따라 주거만족도가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1.25, df=2, p=.289).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도시지역의 단독가구노인은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독립된 공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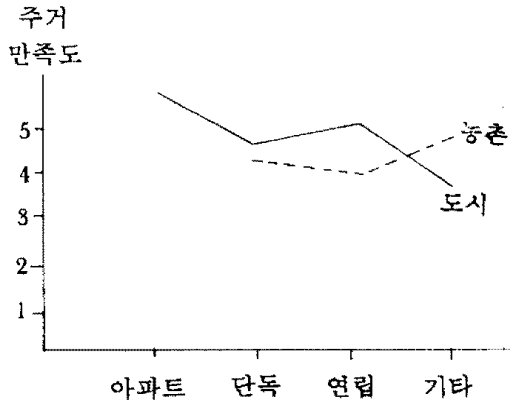


그림 2. 주거 유형에 따른 지역별 주거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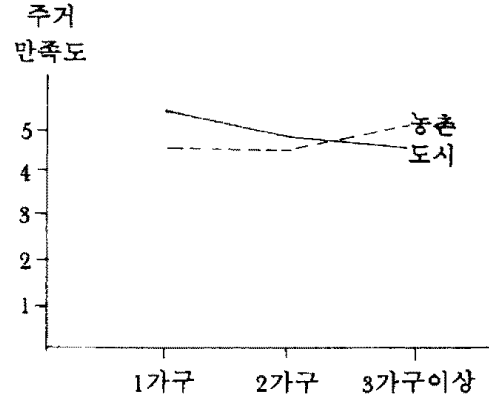


그림 3. 동거가구수에 따른 지역별 주거만족도.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주거유형, 동거가구수 외의 주거특성이 단독가구노인의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4, 5, 6, 7, 8).

먼저 소유권의 경우, 본인이나 자식에게 소유권이 있는 노인들이 세들어 사는 노인보다 주거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F=10.08, df=2, p<.000$). 그리고 난방시설은 기름보일러인 경우($F=$

$15.52, df=4, p<.000$), 욕실시설이 있는 경우($t=8.76, df=136.65, p<.000$), 화장실은 수세식인 경우($t=6.27, df=180.09, p<.000$), 그리고 외부 서비스 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t=4.81, df=4, p<.000$) 주거에 사는 노인일수록 주거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위의 변인들에 의한 단독가구노인의 주거만족도 수준을 도시, 농촌지역별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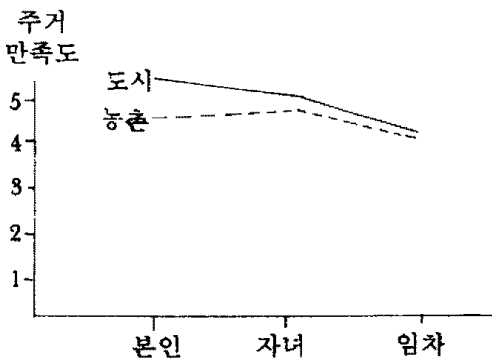


그림 4. 소유권에 따른 지역별 주거만족도.



그림 5. 난방시설에 따른 지역별 주거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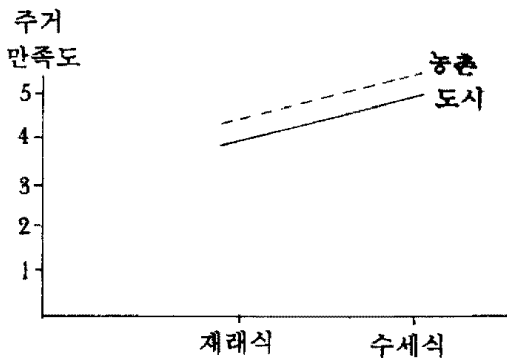


그림 6. 화장실 시설에 따른 지역별 주거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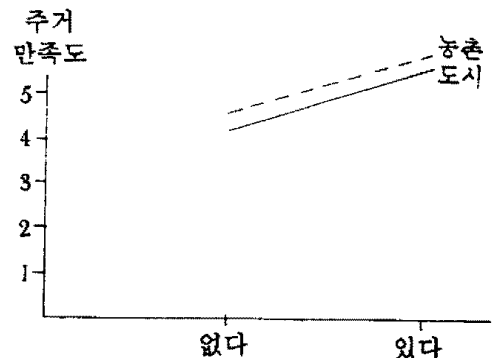


그림 7. 욕실시설에 따른 지역별 주거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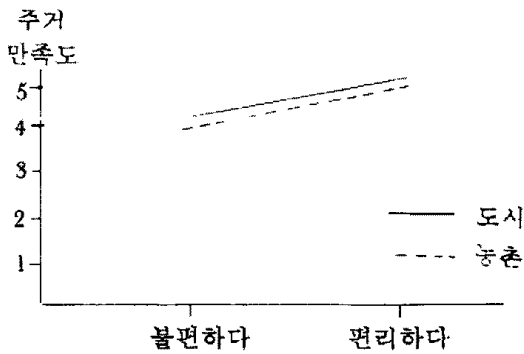


그림 8. 외부서비스시설에 따른 지역별 주거만족도.

먼저 주거 소유권에서, 도시지역의 노인의 경우는 본인(배우자)에게 주거의 소유권이 있을 때 주거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농촌지역에서는 본인(배우자)의 소유보다 자녀에게 주거의 소유권이 있는 경우에 노인의 주거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지역에 아직까지 자녀에게 가계계승이나 재산상속 등을 당연히 여기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화장실이나 욕실시설에서는 도시보다 농촌지역에서 단독가구노인의 주거만족도가 더욱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농촌지역의 시설수준이 도시지역보다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농촌지역 노인들의 주거욕구 수준이 낮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외부 서비스 시설의 사용에 있어서는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노인의 주거만족도 수준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 농촌지역의 서비스 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4. 단독가구노인의 생활만족도

단독가구노인의 생활만족도가 어떠한 변인에 따라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으며 도시, 농촌지역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기 위하여,

먼저 본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제 변인과 생활만족도간의 상관관계를 알아 본 후 중다회귀분석방법을 실시하였다(표 3).

단독가구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제 변인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노인의 주거만족도가 단독가구노인의 생활만족도 전체설명량 43% 중 약 32% ($R=.319$, $Beta=.457$)를 설명해 주었고, 건강이 약 10% ($R=.414$, $Beta=.295$)를 설명해 줌으로서 이 두 변인이 노인의 생활만족도 대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다. 또한 인성특성도 노인의 생활만족도의 1% 정도 ($R=.433$, $Beta=.148$)를 설명해 주고 있다.

지역별 단독가구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살펴 보면 다음(표 4)와 같다.

도시지역의 경우, 단독가구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설명하여 주는 가장 주요한 요인은 주거만족도이며(생활만족도 전체 설명량 55% 중 41% : $R=.413$, $Beta=.148$) 그의 건강이 약 9% ($R=.500$, $Beta=.275$)를, 소득이 5% ($R=.552$, $Beta=.275$)를 설명해 주고 있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경우에도 노인의 주거만족도가 단독가구노인의 생활만족도 전체 설명량 43% 중 25%를 설명해 주고 있으며 ($R=.248$, $Beta=.405$), 그의 건강이 10% ($R=.348$, $Beta=.297$), 인성이 5% ($R=.401$, $Beta=.259$), 주거유형이 3% ($R=.437$, $Beta=.191$)를 각각 설명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나타난 결과를 살펴 보면 단독가구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주로 주거만족도와 건강에 의해 설명될 수 있으며 도시와 농촌지역간에도 이러한 요인의 영향력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여기에서 단독가구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소득이나 건강 등의 요인이 아니라 주거만족도로 나타난 점이 특이한데 이것은 주거만족도가 하나의 매개변수로서 작용한 것으로

표 3. 생활만족도에 대한 제 변인의 회귀분석

변인	R	R ²	변화량	Beta	F
주거만족도	.5648	.3190	.3190	.4572	80.10***
건강	.6435	.4141	.0951	.2953	60.09***
인성변인	.6582	.4333	.0192	.1482	43.07*

* $P<.05$ ** $P<.01$ *** $P<.001$

표 4. 지역별 생활만족도에 관한 제 변인의 회귀분석

변인	도			시	
	R	R ²	변화량	Beta	F
주거만족도	.6434	.4139	.4139	.3976	52.21***
건강	.7071	.5000	.0861	.2750	40.00***
소득	.7430	.5520	.0520	.2754	32.45**
변인	농			촌	
	R	R ²	변화량	Beta	F
주거만족도	.4985	.2485	.2485	.4058	29.11***
건강	.5899	.3480	.0995	.2971	23.21***
인성	.6334	.4012	.0532	.2591	19.21**
주거유형	.6611	.4371	.0359	.1917	16.50*

*P<.05 **P<.01 ***P<.001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단독가구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 주거유형, 소유권, 시설설비 등 주거의 객관적 특성이 아니라 응답자 자신의 주관적 평가가 포함된 주거만족도 변인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V. 결론 및 제언

단독가구노인의 주거만족도는 노인의 인성특성, 주거특성에 따라 각각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것은 도시, 농촌지역간에 서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즉, 운이나 운명을 믿는 노인보다 자신의 행위나 의지를 믿는 노인이 주거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주거특성중 주거유형과 동거가구수에 따른 노인의 주거만족도는 도시, 농촌지역간에 차이가 나타났지만 그외 시설설비 요인에 따라서는 도시, 농촌지역 차이없이 모두 시설이 편리하고 좋을수록 노인의 주거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 적용된 제 변인 중에서 단독가구노인의 주거만족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은 욕실시설로 나타났고,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도시지역의 경우는 소득에 의해, 농촌지역은 외부서비스시설에 의해 이들의 주거만족도가 결정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단독가구노인의 이러한 주거만족도는 도시, 농촌지역 모든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몇가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의 주거환경 및 시설설비를 개선함으로써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즉, 노인의 주거환경중 난방, 욕실, 화장실, 서비스시설 등을 보다 편리하게 해 줌으로써 단독가구노인의 주거만족도를 향상시켜 줄 수 있다.

둘째, 단독가구노인은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함으로써 주거만족도와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셋째, 단독가구노인의 주거환경중 특히 욕실시설은 노인의 주거만족도를 향상시켜주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노인들을 위한 주거계획시 적절한 욕실시설의 설치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단독가구노인은 그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증가시키므로써 생활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참고 문헌

- 1) 고계철(1979). 대도시 주거단지내 노인 주거환경 계획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 김태현(1982). 한국에 있어서의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 서승희(1987). 노인의 주거환경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 유영숙(1985). 자녀와의 동. 별거에 따른 노인문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 이강인(1982). 내 외통제성과 학업성취 및 지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 이경희(1987). 우리나라 주거실태에 관한 연구. 내한건축학회지 31권 4호
- 7) 이영대(1989). 농촌 노인복지 사업의 개선방향. 계간아산, 겨울호.
- 8) 이효재 · 지 순 · 박민자(1979). 한국 저소득층 노인생활에 관한 사회경제 및 공간문제에 관한 연구. 「이대논총」 34집, 17권 9호.
- 9) 임종권(1985). 한국노인의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 10) 장인협 · 최성재(1987). 노인복지학. 서울대출판부.
- 11) 차성란(1984). 가족 및 주거특성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2) 최성재(1986). 노인의 생활만족도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논총」 이화여자대학교.
- 13) 최신덕(1986). 노년사회학. 경문사.
- 14) 최신덕 · 김종숙(1983). 노인과 사회. 서울 : 우일문화사.
- 15) 최혜경(1985).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6)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84). 한국노인의 생활과의식구조.
- 17)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9). 노인단독가구의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 18) 홍성희(1983). 주거가치관에 따른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9) Anderson, S. & Weidemann, J.R.(1985). A Conceptual Framework for residential Satisfaction. In Altman et al, *Home Environment*, pp. 153-182.
- 20) Brink, S. & Johnston, K.(1979). Housing Satisfaction : The Concept and Evidence from Home Purchase Behavior,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7, No. 6, pp. 338-345.
- 21) Butler, A. & Greve, J.(1983). Housing and the Elderly Sheltered Housing for the Elderly, National Institute of Sociology London.
- 22) Butterfield & Weidemann(1987). Housing Satisfaction of the Elderly In Pynoos J. & Regnier V., *Housing the Aged*, Elsevier Science Publing Co., Inc. pp. 133-146.
- 23) Chatified, W.(1977). Economic and Sociological Factors Influencing Life Satisfaction of the Aged, *Journal of Gerontology*, Vol. 32, pp. 593-599.
- 24) Cook, C.C.(1988). Components of Neighborhood Satisfaction Responses from Urban and Suburban Single-Parent Woman. *Environment and Behavior*, Vol. 20, No. 2, pp. 115-149.
- 25) Dowd,J.J.(1974). Aging as Exchange : A Preface to theory, Mimeographed. Department of Sociology, Gerontological Center,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26) Feild, J.A.(1975). Socio-Economic, Physical, Housing Location and Social-Psychological Measures used as Predictors of Housing Satisf-action, *HERJ*, Vol. 1.
- 27) Frances, M.C.(1976). Housing and Living Environment of Older People. In Binstock, R.H. & Ethel Shana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K. Van No-strand Company, New York.
- 28) Golant, S.M.(1982). Individual Differences Underlying the Dwelling Satisfaction of the Elderly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38, No. 3.
- 29) Hourihan, K.(1984). Residential Satisfaction, Neighborhood Attributes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 An Exploratory Pathanalys in Cork, Ireland, *Environment and Planing*, Vol. 16, pp. 425-436.
- 30) Kalish, R.A.(1975). Late Adulthood : Perspectives on Human Deveropment, Berkely : cole Publishing Co.
- 31) Lawton, M. & Cohen, I.(1974). The Generality of Housing Impact on the Well-being of Older People, *Journal of Gerontology*, Vol. 29.
- 32) Lee, G.R.(1986). Rural Issues in Elderly Housing, In Newcomer, R.J., *Housing an Aging Society*, pp. 33-41.
- 33) Marans, R.W.(1976). The Determinants of Neighborhood Quality : An Analysis of the 1976 Annual Housing Survey, Washington DC : Superin tentent of Documents.
- 34) Medley, M.(1976).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 Persons Sixty-five Years and Older, *Journal of Gerontology*, Vol. 31.
- 35) Meek, C.B.(1980). Housing,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 J.
- 36) Morgans, R.W. & Rodgers, W.(1978). Toward an Understanding of Community Satisfaction, In Contemporary perspective, New York.
- 37) Newman, S.J.(1984). Housing Older America, In Altman I., (eds) Elderly People and the Environment, New York : Plenum Press, pp. 17-55.
- 38) Newman, S.J.(1986) Demographic Influences on the Future Housing Demand of the Elderly. In Newcomer, R.J., Housing an Aging Society, Van Nostrand Reinhold Company Inc.
- 39) Stoeckeler, H.S. Loglinear Models for Analyzing Housing Sentiments of Family Members in a Metropolitan and a Non-Metropolitan Community, *Home Economic Research Journal*, Vol. 9
- 40) Strieb, G. & Beck, R.W.(1980) Older Family : A Decade Revo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2, pp. 205-214.
- 41) Struyk, R. & Soldo, B.J.(1980). Improving the Elderly's Housing, Cambridge M.A., : Ballinger.